

지역 소식통

부안군, 김태연과 함께 하는 열린음악회 공연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김태연과 함께 하는 열린음악회 공연을 오는 9월 30일(금) 오후 7시 30분에 부안예술회관 2층 공연장에서 선보인다.

이 공연은 보컬 이소윤과 클라리넷 하모니오케스트라(지휘자 유수영)의 시작으로 국악·트롯·신곡 김태연의 신곡 '수고했어 오늘도', '오세요, 아버지'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태연 양은 대한민국 춘향극악대전 최연소 대상뿐만 아니라 '미스트롯2'에서 최종 4위로 대중들의 큰 사랑을 받았고 이번 공연 또한 부안군민들에게 뜨겁게 선보일 예정이다.

이 음악회는 부안군 클라리넷 하모니오케스트라가 주관하고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이 주최·후원하는 '2022년 공연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으로서 부안군민들의 문화향유 확대와 문화예술 활성화에 힘쓰고자 기획되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민선8기 공약 사업 검토보고회 개최

고창군이 지난 20일 삼덕읍 군수의 주재로 부군수, 국장 및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6개 분야 98건으로 분류된 민선8기 공약사업에 대한 검토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민선8기 공약들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계획을 검토하고 문제점 있는 공약은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부서별로 추진 방향과 사업개요, 검토의견 등을 보고했다.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은 내·외국인 농촌 인력지원센터 설치, 관계인구 10만 시대, 문화예술행유 확대,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 생태복합 관광지 조성, 장애인 체육관 신축 예산 1조 시대, 고창사랑기부체 활성화 등이 꼽힌다.

군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검토와 세부 실행계획 보고회를 거쳐 군정에 반영할 공약사업들을 이달 중 확정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귀농인 위한 '지식 나눔이' 운영

정읍시,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내 조성

정읍시가 귀농·귀촌 정책의 거점 역할을 하는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내에 '지식 나눔이' 공간을 조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 일환으로 조성된 '지식 나눔이' 공간은 귀농·귀촌인들이 실제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귀농·귀촌 관련 서적을 한데 모은 서가다. 총사업비 440만 원을 투입해 이용자를 위한 열람 좌석과 벽면 책장 등을 마련하고 귀농·귀촌과 관련한 전문서적 150여 권과 자기 계발에 필요한 서적 70여 권을 비치했다.



도서 대출은 정읍시로 귀농·귀촌 예정이거나 귀농·귀촌 상담 이력이 있는 경우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을 희망하는 예비귀농·귀촌인들은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정읍시 구왕길 237)에 방문해 도서 대출 대장에 정보를 기입하고 도서를 열람

하거나 대출하면 된다. 시는 귀농·귀촌과 연계해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자료 보충을 통해 차별화된 정보서비스 제공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정읍으로 이주했거나 이주를 희망하는 귀농·귀촌인들에게 '지식 나눔이' 공간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이용자 현황을 분석해 전문 서적을 더욱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는 귀농을 바라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원스톱(One-Stop)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편안한 휴식과 정보교류의 공간 등을 지원하는 귀농·귀촌 거점 공간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가 시민에게 쾌적한 거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가로수 은행나무 열매 조기 채취에 나선다.

"시민 불편 최소화할 방침"

정읍시, 가을 불청객 은행나무 열매 조기 채취 나서

정읍시가 시민에게 쾌적한 거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가로수 은행나무 열매 조기 채취에 나선다. 가을철 도심을 노란빛으로 물들이는 은행나무는 병충해와 공해, 가뭄에 강하고 생존력이 우수해 가로수로 널리 식재되는 대표적인 수종이다. 특히, 이산화탄소 흡수력과 대기 정화 능력이 뛰어나고 여름철 도심 내 열섬현상 완화에도 도움을 주지만 낙과한 은행 열매로 인해 가을에 접어들면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시는 악취와 시민 인도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총정로 등 은행나무 가로수 구간에 대해 열매를 채취할 계획이다. 열매 채취작업은 올해 신규 도입한 진동 수확 장치를 이용한다. 굴삭기에 장착한 집게로 나무 몸통 부위를 붙잡고 모터를 이용해 진동을 주어 열매를 떨어낸다. 떨어진 열매는 전량 폐기한다. 시 관계자는 "은행나무는 가로수로써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만큼 제거하기보다 열매 채취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라며 "작업 시 이동 주차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 내 은행나무 가로수는 대부분 1985년~1998년 조성됐다. 주요 노선은 총정로(구 정읍IC~대림아파트), 남북로(삼화그린아파트~제일고), 서부산업도로(종합운동장~2공단), 천변로(시가지주공 앞), 소성선(목련아파트~주천삼거리) 등이 있다. 이 노선에 은행나무는 총 2,849주로 이중 암나무는 605주(21%), 수나무는 2,244주(79%)다. /정읍=김대환 기자

베트남 까마우성 대표단 일행, 부안군 방문

계절근로자 협력방안 논의

베트남 까마우성 럽반비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등 8명으로 구성된 대표단 일행이 지난 21일 부안군을 방문해 농촌 외국인계절근로자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까마우성 대표단의 부안군 방문은 지난 5월 23일 부안군과 베트남 까마우성과 맺은 농촌 외국인계절근로자 협약사항을 논의하고 교류 증진을 모색하기 위해 방문했다.

이날 논의된 주된 사항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 부안군 농촌 농민기 일손부족 해소에 큰 도움을 주는 만큼 부안군에서 요청 시 베트남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으며, 아울러 부안군과 베트남 까마우성이 협력방안을 증진시켜 농업뿐만 아니라 문화와 교육, 관광 등 다방면으로 교류를 확대 하자



베트남 까마우성 럽반비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등 8명으로 구성된 대표단 일행이 지난 21일 부안군을 방문해 농촌 외국인계절근로자 협력 방안을 논의 하였다

는 내용이었다. 부안군을 방문한 베트남 까마우성 럽반비 부위원장은 "지난 계절근로자 협약을 바탕으로 다양한 인적교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하고 "이 기회를 통해 양국 도시 간 우호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택 부군수는 "베트남 까마우성 대표단의 부안방문을 환영하며 앞으로 베트남 계절근로자가 도입되면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군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2022년 집중안전점검 실시

고창군은 10월 14일까지 2022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은 집중점검기간을 정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군민모두 안전점검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재난 예방 활동이다.

군은 위험시설 안전관리체계 확립 및 점검의 실효성 강화와 군민 참여를 통한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삼고, 노후·위험시설물

100개소와 주민신청 대상시설 5개소 등 총 105개소에 대해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점검대상 주민신청제'를 도입해 지역 주민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에 대해 마을회관 등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노형수 부군수는 "지난 19일 안전총괄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고창공공하수처리장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노형수 부군수는 고창공공하수

처리장 현황과 유지관리 상태를 보고 받았으며, 재해위해요소를 세심히 살펴보고 있다.

먼저 고창군은 민간예찰단 등과 함께 집중안전점검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여 군민의 자율적인 참여에 적극 앞장서기도 했다.

노형수 부군수는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꼼꼼히 점검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군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최선을 하겠다"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장애인배구팀, 전국 배구대회서 '우승'

정읍시 장애인배구팀이 최근 충남 보령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제5회 보령시 전국 장애인 좌식 배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정읍시 대표로 출전한 장애인배구팀은 8강전부터 한 세트도 양보하지 않으면서 결승전까지 연승을 이어갔다.

8강전 홍성군과 2대0, 4강전 예산군과 2대0으로 완승을 거뒀으며, 강력한 우승후보팀인 아산시를 상대로 결승에서 접전을 벌인 결과 세트스코어 2대1로 전국 최강팀임을 증명했다.

이로써 전국 좌식 배구대회는 정읍시 대표팀이 우승, 아산시 대표팀 준우승, 홍성군 대표팀과 예산군 대표팀이 공동 3위를 차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특히, 35년 동안 선수로 활동한 배구팀 주장 송현 선수가 MVP 선수로 선정되는 경이로운 일이었다.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펼쳐진 이번 배구대회는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장애인 체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열린 체육대회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